

#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하소연

### 광주시청 30년 근무 A씨 임금 9급 일반직의 절반 수준

### 호봉승급·공무원 연금 가입 안돼 신분 개선 목소리 높아

#1. 광주시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입사 10년이 됐지만, 기본급은 120만원에 불과하다. A씨의 기본급은 20년 후인 2034년이 되더라도 겨우 14만원이 오른 134만원이다. 이는 월급 체계가 호봉제임에도 연 인상액이 6000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반면 9급 공무원 기준 10년차는 183만원, 30년차는 26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욱이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광주 5개 구청 직원들은 구청장 재량으로 9급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적용받아 임금이 안정적이다. A씨는 “광주 5개구 수준만 대도 소원이 없겠다. 자식들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구청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부러워했다.

#2. 또 다른 무기계약직 B씨는 이른바 직장 내 왕따를 당했다. 자신에게만 유독 업무 외 잡일을 시키는 것에 항의한 것이 문제였다.

일반직과 기능직들끼리 토폴 토폴 점심은 물론 티타임 등에서 제외하는 등 사무실 내 외톨이를 만는 것이다.

B씨는 “무기계약직은 승진이 없고, 정년만 보장된 탓에 사무실에서 무시당하는 일은 일상적”이라면서 “갖 들어온 20대

직원까지도 아무렇지 않은 듯 업무 외 일을 시킬 때면 극심한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고 말했다.

‘시민운동가 출신’ 윤장현 호(號)의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내에서 ‘현대판 서자’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개선의지만 있다면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평화·인권의 도시를 자칭하는 광주시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왜 ‘현대판 서자’로 불리나=광주시청 내 무기계약직은 총 257명이며, 전국적으로는 공공기관 기준 5만명이 넘는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적인 계약직에게 정년만 보장된 형태로, ‘무늬만 정규직’이다. 임금은 물론 근무환경, 복지 등은 비정규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무기계약직이란 명칭은 조직 직제에도 없다. 물론 정원 외로 분류돼 조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식이면 서로 호적에 이름도 못 올리는 서자(庶子)의 처지인 것이다.

서자 취급을 받다 보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업무 등을

맡게는 10년 넘게 맡고 있으면서도 업무 연수 등 각종 혜택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에게 모두 빼앗기는 등의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식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는데도, 승진 등이 없는 탓에 1년을 근무해도, 30년을 근무해도 직급이 동일하다.

직장인의 큰 기쁨 중 하나인 직급 상승 기회가 박탈돼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승진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들에 대한 호봉체계 개선 등 처우 개선안이 나올 때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온 9급 공무원에 비하면 과도한 혜택’이라는 등의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무기계약직 개선 방법은 없나=이들의 바람은 ▲무기계약직을 새 직제인 ‘공무직’으로 전환 ▲총액인건제를 활용한 정석 정원 포함 ▲근무 연수에 따른 실질적인 액수의 호봉 승급(광주 5개구청 수준) ▲공무원연금 가입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이들 모두 자치단체장의 개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동료의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의 ‘무조건 NO’라는 자세와 갖은 핑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배성준 (준)전국 공무직(무기계약직)협의회 간사는 “인사 담당공무원의 의지만 있어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동안 무기계약직 자체를 자신들 밑에서

업무보조나 하는 하위직단으로 여겨온 탓에 관심조차 두지않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이 정당한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시민시장을 배출한 광주시부터 제도개선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과 인천 등 전국 35개 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 대신 ‘공무직’이란 새로운 직제를 편성해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다만, 독소조항이 많은 인사관리 규정을 수정하지 않아 ‘미완의 직제 편성’이란 말도 나온다.

특히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광주는 공무직이란 직제 편성조차 각종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 운동가 출신 광주시정의 업무 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공무직 전환을 비롯한 인사관리 규정까지 수정해 민주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호봉제 개선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이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 5개구청은 일반직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만들어 시행중인 만큼 이를 본보기로 삼으면 된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공무원연금 가입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다’는 규정에도 없는 관행적인 이유 등을 들어 묵살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이미 정년경찰 등 일부 무기계약직은 연금 가입 혜택을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지하주차장 조명 LED 교체 에너지절감 아파트 인센티브

### 시, 22곳에 3000만원 지급

광주시가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 설치한 에너지절감 우수아파트 22개 단지에 인센티브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인센티브는 지하주차장을 LED조명으로 교체 완료한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 에너지절감, KS와 고효율 인증,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평가한 후 최대 200만원까지 각 아파트별로 지급했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매월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비용을 상환하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로 에너지를 절약) 방식이나 자체 비용으로 먼저 지하주차장을 LED조명으로 교체한 아파트다.

올해 현재까지 작년(23개소)보다 15개 아파트가 많은 38개 아파트단지가 지하주차장을 LED조명으로 교체 신청해와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24시간 조명을 켜고 있어 LED조명 교체비용을 3~4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장점에 불구하고 공공부분과 달리 보급률이 낮은 민간부분 LED조명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조명을 센서 기능이 있는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절전효과가 있고, 무료 컨설팅과 계량기 설치, 절전검증, 5년간 품질보증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아파트 단지가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는 광주시(062-613-3741) 또는 한국광산업진흥회(062-605-9643)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 가능

### 이달부터 앱 서비스

광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

‘스마트 위택스’ 앱은 안전행정부에서 개발 보급한 것으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지방세 전국 조회 및 납부 ▲환급금 조회·신청 ▲납부내역 확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기 등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 ‘위택스’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위택스 회원 가입과 본인 여부에 관계없이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김치버스’ 브라질서 홍보활동 **제21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와 한국의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김치버스’가 2014 월드컵이 치러지는 브라질 현지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치버스’는 조리사 출신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음식문화와 김치를 알리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1년부터 유럽, 미주 등 28개국 150여 개 도시에서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광주시 제공>



# 푸드뱅크와 함께하는 ‘BGF사랑의 물품 나누기’

광주시는 최근 시민회에서 ‘푸드뱅크’와 함께 제2회 BGF리테일(브랜드 CU) 사랑의 물품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복지협의회(광주광역시푸드뱅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종합유통서비스 기업인

BGF리테일 광주·전남 영업부 임직원 봉사단과 광역·기초푸드뱅크 관계자 등 45명이 BGF리테일에서 기부한 물품을 박스로 제작해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 250세대에 전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어부사시사

전복요리 전문점

**여름철 별미**

황칠나무로 우려낸

### 전복삼계탕 15,000원

**점심 특선 메뉴**

- 전복 비빔밥
- 전복 뚝배기 ₩8,000원
- 전복 갈치찜
- 전복 갈비찜
- 전복 생우럭지리

목포 용해동사무소 뒷편 ☎ (061) 278-4111

## 백함촌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물품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 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small>1인추가시 5,000원 추가</small>
백함세트 (탕+우침+구이)	50,000원
백함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앞 담양골 건너편)  
☎ (061) 281-9907

##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 283-2322  
F (061) 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검찰청 정문앞